

지역 소식통

김제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오늘부터

김제시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일회용품과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여름철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청소지원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무단투기 취약한 야간 시간대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계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중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등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관내 151곳에 설치된 단속용 이동식 CCTV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투기지역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유통적인 CCTV 이동설치로 감시망을 구축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진봉면, 2021년산 시장격리곡 3차 매입

김제시 진봉면은 쌀값 안정을 위한 2021년산 시장격리곡 3차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시장격리곡 매입은 역곡매 방식으로 농가·농협·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의 판매가를 정해 응찰해 입찰 물량 중 낮은 가격을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진봉면에 배정된 시장격리곡은 총 28농가, 서김제 RPC, 진봉농협 98t이다.

진봉면은 9일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진봉농협, 개인창고주 등의 협조를 받아 검사를 실시한 후 농산물 품질 기준 1등급 이상 벼에 한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광국 진봉면장은 9일 시장격리곡 매입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업체 우선계약 '역점'

완주군, 수의계약 취약계층 기업 확대... 건수·금액 제한 총량제도 도입

유희태 완주군수(사진)가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완주군은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1순위를 완주군에 두고 모든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 완주군의 공사는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95%이상의 관내 계약률을 유지해왔다. 다만, 물품과 용역의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나 기술력의 부족으로 매년 50%정도의 계약을 유지해왔다.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완주군은 수의계약 대상을 취약계층 기업으로 확대하고 관내업체 목록을 전 부서에 배부해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조성한 완주 농공단지과 테크노밸리 산업2단지에 대한 분양률이 증가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또한 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의 물품과 규격 등을 반영해 관내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권고했다.

이에 더해 연 1개 업체외의 계약 가능한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입찰공고문에 낙찰업체가 관내업체의 하도급, 자재, 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다수의 많은 업체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기자

"신흥계곡 불법 개발 원상회복 계획서 내라"

초강수 대응 나선 완주군, 양우회유지재단 측·토지 임차인 대상 16일까지 관련 서류 요청

완주군이 경천면 신흥계곡 내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해 (재)대승불교양우회유지재단과 토지 임차인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관련 계획서를 내라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완주군은 대둔산 인근의 봉수대산 자락에 위치한 신흥계곡 내 임야를 불법으로 농지로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며 절토를 한 행위와 관련해 대승불교양우회 유지재단 측 관계자와 토지 임차인 안 모씨 등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계획 관련 서류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완주군은 앞서 지난달 19일에 양우회유지재단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고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추가 불법행위와 관련해 재단 측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고발한 바 있다.

완주군은 또 지난달 25일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 통보를 한 데 이어 이달 1일에 재단 측과 토지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3차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불법 공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달 4일 원상회복 계획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임차인 등에게 요청하는 등 강수대응의 칼을 빼들었다.

완주군은 양우회 측과 토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계획과 관련한 서류를 제

출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민약 양우회 측과 토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불법 공사를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 중지 요청과 원상회복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법 공사가 계속돼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원상회복 될 때까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 봉남면,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공모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3년 지역수요 맞춤형 원사업에 공모해 귀농귀촌 행복의 열쇠 Dream, 봉남면 사업이 확정됐다며 50여명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농촌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편으로 LH와 협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봉남면 지역의 생활 SOC 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활 SOC 시설은 봉남면 소재지에 조성되며 새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들 뿐 아니라 봉남면 소재지 주민이나 봉남면민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드림교류센터 조성을 통해 봉남면민 소통과 힐링의 공간으로 북카페, 동아리 활동실 등 다양한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및 교류 광장을 조성해 원과 농이문화를 즐기고 신재생에너지 조성으로 봉남면민들의 휴식 및 재충전의 공간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해 삶의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제시는 지난해에 사업을 구상해

올해 공모에 적극 대응했으며 특히 김제시와 전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힘을 합쳐 국비 20억원 포함 5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사업계획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 확보에 노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도시,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은 최고의 도시가 돼 3개월 지속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이후로도 전북권 4대도시로 똬뚱하는 김제시가 되도록 온 공무원과 시민이 하나되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쌀값 하락으로 벼 대체작목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김제시 죽산면 흥산리 농가명 정성원)에서 국립식량과학원, 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국립경성대학교는 논 이용 활성을 위한 쌀 옥수수 + 콩 2모작 작부체계 최적 재배 기술 연찬회를 열었다.

옥수수+콩 2모작 논 이용 활성화

김제 죽산 흥산리서 작부체계 최적 재배기술 연찬회

쌀값 하락으로 벼 대체작목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김제시 죽산면 흥산리(농가명 정성원)에서 국립식량과학원, 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국립경성대학교는 논 이용 활성을 위한 쌀 옥수수 + 콩 2모작 작부체계 최적 재배 기술 연찬회를 열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논을 활용한 작부체계 하에서 과중 시기 및 재배기술 등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특히 논 재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습해를 1월 고휴 재배와 배수 설치로 경감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벼 재배 대비 2~4배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중 기술보급과장은 옥수수 + 콩 작부체계 외에도 "밀 + 콩, 분질미 + 맥류, 시설감 + 콩 또는 벼 등 다양한 농가 소득방안에 대한 기술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한 연찬회는 현재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에서 논이용 발작물 2모작 재배 확대를 위한 콩과 옥수수 최적 재배기술 개발 과제로 경남 창원, 충남 논산 전북 김제에서 현장 실증시험을 진행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그리웠던 모국에 잘 다녀오세요"

김제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전설명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9일 고향나들이 사업에 선정된 47구 19명을 대상으로 어울림센터 3층에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7월 19일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47구가 참석하였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고향나들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과 더불어 여행수칙등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코로나19가 확산세인 점을 감안 보건소에서도 감염병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도 참석해 식물검역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2018년에 이어 4년만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선정된 47

족에게는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근철 은씨는 "그 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6명의 가족이 친정나들이 한번 가지 못했는데 이번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사업에 선정되어 너무 기쁘고 모국방문 기회를 주신 김제시와 가족센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은 "2022년 고향나들이 사업에 선정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예년 대비 사업량이 절반으로 축소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고향나들이 사업의 기회를 제공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의 숙원 사업인 점을 감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